

광주여성아카데미 초청 강연차 來光 소설가 김홍신씨

“DJ는 걸출한 인물.. ‘공업용 미싱’ 발언은 이용 당한 것”



“현정권 호남중용 무시 문제 많아”

“요즘 책 쓰라 강연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참 빛을 많이 졌더라고요. 작가로서 사랑해주시고, 정치인으로도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께 빛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27일 광주시가 주최한 광주여성아카데미의 초청강사로 광주에 온 소설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62·건국대 석좌교수)씨는 왜소한 체구에 동네아저씨 같은 차림이었지만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연에 앞서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는 지난 2년여간 100여 차례의 강연기록을 다듬어 최근 펴낸 에세이집 ‘인생사용 설명서’(해냄 펴냄)를 언급하며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서도 물질적 욕구에 휘둘러 사는 우리들은 단 한 번인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 스스로 인생사용 설명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강연에서도 밝히겠지만 “인생사

용법은 복잡하거나 지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정치시즘만 되면 으레 ‘이번엔 복귀할 거냐’ 장관·단체장에 뜻이 있느냐’ 말들이 많은 데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럴 여유가 없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작가로서 글 쓰고 강연 다니는데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김씨는 현재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이용당한 측면이 컸다. 난 비판을 받으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다. 언어의 순화라든가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우리 정치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걸출한 인물이다. 존경하는

마음 여전하다. 그런 원로들이 병상에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 원로들이 병상에 계시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정치에 대해 건강한 참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씨는 “현 정권이 ‘호남중용’을 무시하는 처사는 문제가 많다며 영남정권 대통령이 있을 때 동서간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주전남이 문화·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민족의, 미래사회의 기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197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1980년대부터 작가와 방송진행자로 명성을 날린 작가 김씨는 제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낙선한 뒤 ‘김홍신의 대발해’ 등 저술과 강연활동에 전념해 왔다.

최근 ‘인생사용 설명서’와 ‘김홍신의 대발해’ ‘청소년 판인 ‘김홍신의 청소년 대발해’(전 5권)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안순일교육감 ‘배구인 강습회’ 축사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27일 오전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09 배구인무연수 및 심판 기술지도 강습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KIA타이거즈 V10 기원 사진전’ 열려



KIA타이거즈(단장 김조호)와 팀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원장 주종대)이 공동주최한 ‘KIA타이거즈 V10 기원 사진전’이 다음달 15일까지 서구 능성동 밝은클리닉센터 8층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이종범, 안치홍, 유동훈, 윤석민 등 KIA 선수들의 사진 32점이 전시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만해문학상에 공선옥씨

신동엽창작상 김애란씨

창비가 주관하는 제24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공선옥(46)씨가, 제27회 신동엽창작상 수상자로 소설가 김애란(29)씨가 27일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공씨의 소설집 ‘나는 죽지 않겠다’와 ‘명랑한 밤길’, 김씨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이다. 만해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명랑한 밤길’은 공선옥이 즐겨 다뤄온 불우한 환경 속의 인간들이 이야기 한층 성숙된 경지에 도달한 소설집이며 ‘나는 죽지 않겠다’는 작가의 씩씩한 기성과 섬세한 솜씨가 더욱 빛을 발한 느낌을 주는 문학적 성취”라고 밝혔다.

신동엽창작상 심사위원회는 김애란



공선옥



김애란

의 작품에 대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2000년대 한국의 현실을 젊은 주체의 새로운 감각과 어법으로 빼어나게 포착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상금은 만해문학상 2천만원, 신동엽창작상 1천만원이며, 시상식은 11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열린다.

/연합뉴스

정성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광주지검 산하 지청장이 전남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4대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지난 3월 부임한 정성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은 지역을 선도하는 ‘4대 7(字) 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 지청장은 부임 이후 목포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 자세를 확립하고자 펼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지역선도 4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벌이는 지역선도 4대 운동은 ‘교통사고 줄이자’, ‘바다를 수호하자’, ‘영산강을 살리자’, ‘특산품을 지키자’ 등이다.

정 지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경찰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마련한 대책과 계도활동 덕분에 교통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정성운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은 천일염과 홍어, 쌀 등 우수한 특산품이 생산되지만, 불법 거래와 유통 등으로 명성에 먹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검찰이 나서서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막아 특산품의 명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서남해 갯벌과 청정해역, 질 좋은 해산물이 생산되는 바다를 수호하고,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을 살리는데 검찰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가 긴급 수호에 필요한 판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현장을 한다는 언론보도 때문이었다.” 양 경사는 “합동 합정 근무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하면 몸이 상할까 봐 걱정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이해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말했다.

‘정년퇴직 전까지 300회 현열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그는 건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틈날 때마다 체력 단련에 구슬땀을 흘린다.

합정 근무하면서 20년간 100회 현열

을 현열을 했다. 이후 현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20년간 해마다 5회기량 현열을 해 100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대한직업자에서 30회 이상 현열자에 제주도에서 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현열차를 보고 제주관광 기념으로 낚생 차

를 구입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성신산업 경로당에 왕골돔자리 전달



왕골 돔자리 전문업체인 성신산업(대표 임성원)은 노인들을 위해 최근 나주시 이창동 등 관내 경로당에 왕골돔자리 110개를 전달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jung@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별세

박세직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이 27일 오후 4시16분께 별세했다. 향년 76세.

박 회장은 6·25전쟁 59주년 행사를 비롯, 업무과외가 겹쳐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아산 병원에 입원해오던 중 이날 별세했다고 향군이 밝혔다.

사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폐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 및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군은 전했다.



박세직

/연합뉴스

1억 고료 ‘멀티 문학상’

첫 수상자에 김이환씨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와 방송사 SBS, 영화투자배급사 쇼박스가 1억원의 고료를 걸고 공동 제정한 ‘멀티 문학상’의 올해 첫 수상자로 김이환(31·사진)씨가 27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절망의 구’.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PC통신을 통해 발표한 단편을 바탕으로



김이환

로 한 장편 ‘에비터 켄의 유령’을 2004년 출간한 이후 ‘양말 짚는 소년’, ‘오후 다섯 시의 외계인’ 등의 소설을 출간한 ‘기성 작가’다.

수상작은 내달 위즈덤하우스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SBS와 쇼박스는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내달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목포해경 양대진 경사

“현열을 많이 하면 몸이 상할 것으로 오해하신 어머니께 걱정을 거쳐 드린 게 가슴이 아픕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200기 경비함에 근무하는 양대진(43) 경사가 20년 동안 100회의 현열기록을 세워 ‘현열왕’으로 등극했다.

양 경사는 1980년대 후반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현열차를 보고 제주관광 기념으로 낚생 차



양대진

를 구입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합정 근무하면서 20년간 100회 현열

을 현열을 했다. 이후 현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20년간 해마다 5회기량 현열을 해 100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대한직업자에서 30회 이상 현열자에 제주도에서 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현열차를 보고 제주관광 기념으로 낚생 차

를 구입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 ▲조선대 조우회(회장 민경채) 월례회=28일(화) 오후 6시30분 영광 글씨 식당. 062-222-5354.
▲승원고 총동문회(회장 김영문) 월례회=8월3일(월) 오후 7시 풍암동 녹차막인오리. 062-682-5567.

향우회

- ▲재광순창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수) 오후 6시30분 대인동 심심전어회관. 010-3624-003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키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2009년 제4기 윈드서핑 강좌=8월1~31일까지 무안군 현경면 ‘광주전남요트학교 교육장’, 문의 광주전남요트학교(062-514-7955)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

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전문통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할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불교 송곡.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으

신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빌딩.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방산동 연아빌딩 1층. 062-651-1175~6.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일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오전 10시, 타구교실(수·오·후 2시), 자을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본

국·천축·천수·천순·옥순·박순·천속씨 부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덕남씨 별세 송승석·승환·승현·치현·숙현·미현씨 모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조길만씨 별세 윤재·성오·지훈씨 부친상=발인 28일(화)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김일순씨 별세 조만기(전 국민은행기금부지점장)·동희(자영업)·명석·명자·성자·행숙·정재(국민은행계장)·모친상 이정신(화순중 교사)·김진경씨 시모상=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천중계씨 별세 세옥(중흥골드스파리조트)·세정·수복·순복·순희씨 부친상 김하식(조선이공대)씨 부부상=발인 28일(화)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일용씨 별세 영환·성열·종화·대은씨 부친상=발인 28일(화)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백백순씨 별세 박 일(일등학원원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유동 성요한병원 장례식장. 062-510-3173.

▲김영수씨 별세 조만기(전 국민은행기금부지점장)·동희(자영업)·명석·명자·성자·행숙·정재(국민은행계장)·모친상 이정신(화순중 교사)·김진경씨 시모상=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천중계씨 별세 세옥(중흥골드스파리조트)·세정·수복·순복·순희씨 부친상 김하식(조선이공대)씨 부부상=발인 28일(화)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일용씨 별세 영환·성열·종화·대은씨 부친상=발인 28일(화)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백백순씨 별세 박 일(일등학원원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유동 성요한병원 장례식장. 062-510-3173.

▲김영수씨 별세 조만기(전 국민은행기금부지점장)·동희(자영업)·명석·명자·성자·행숙·정재(국민은행계장)·모친상 이정신(화순중 교사)·김진경씨 시모상=발인

- 국·천축·천수·천순·옥순·박순·천속씨 부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덕남씨 별세 송승석·승환·승현·치현·숙현·미현씨 모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조길만씨 별세 윤재·성오·지훈씨 부친상=발인 28일(화)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김일순씨 별세 조만기(전 국민은행기금부지점장)·동희(자영업)·명석·명자·성자·행숙·정재(국민은행계장)·모친상 이정신(화순중 교사)·김진경씨 시모상=발인

미리미리 프리드 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정액시스템 프리드 현대중앙상조 기금문화 1688-3740